



동북신문

늦었지만 케이블카 거론 다행, 때는 기다리지 않아

강북구의회에서 지난 5일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다가 보류되었지만 다행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에는 순서가 있고 일등만이 성공할 수 있기에 말로써 지역발전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주문하게 된다.

강북구에 케이블카 설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는 사안 중의 사안으로 강북구의 지역여건으로는 사방이 한계선에 막혀 어디 한곳도 개발할 여지가 없기에 강북구에 접경되어 있는 천혜의 북한산을 이용한다면 강북구 발전에 초석이 되면서 강북구에는 제일 큰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북구는 사방이 막혀 어느 곳 하나도 개발할 곳이 없기에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을 이용한 강북구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강북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는 것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북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경제 향상이라는 말장난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강북구에 주어진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에 강북구의 발전에 뜻있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만시지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각산포럼에서 케이블카와 대형병원 유치를 위해서 서명 작업을 했을 때 민주당의 오영식 위원장과 당시의 구의원들이 일제히 서명한 것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르 없다는 증거로 삼각산포럼이 케이블카설치와 통일교육원을 이전시키고 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 것이 지역당의 앞잡이나 야당의 앞잡이가 아니고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에 대한 충정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와 통일교육원을 이전시키고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뜻있는 주민들은 강북구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한 목소리

로 힘을 모아서 구민들의 소원을 성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강북구에 케이블카설치를 유치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지역적 여건이고 둘째는 접근성이 거론되고 있는 타 지역들보다는 제일 좋고 경전철이 개통된다면 이 지역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한 예로 통영의 케이블카설치로 연간 일자리 창출이 2만5천명이고 경제적 효과는 연간이용인원이 100만 명에 이르면서 1천600억 원이 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가 입증하고 있기에 강북구의 우이동에서 인수봉이나 만경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에 강북구의 케이블카설치는 숙명적인 것이라 하겠다.

강북구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많은 이용객이 필수이다. 강북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우이동~신설동간 경전철이 개통되면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이용요금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대인 1만7천원 소인 8천5백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액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큰 것이 단점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이다.

또 우이동에서 만경봉이나 인수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인수봉과 만경봉에서는 서울 전역을 조명할 수 있는가 하면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되기에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도 확실할 것이기에 케이블카 설치의 성공이고 지역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지기에 케이블카 설치의 강북구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이고 꼭 성공시켜야 할 강북구의 당면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우이동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주변의 상가는 물론 우이동의 먹거리시장이 활성화되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역발전의 비전 있는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강북구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강북구는 우이동에서 만경봉이나 인수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통일교육원을 이전시키고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대역사를 이루어야 하겠다.